

# 출판의 변경지대 개척하는 새내기 출판사들

## 삼인·이산·박가서장 등 편집인 출신들 출판경영 전선에 나서

최근 오랫동안 편집자와 기획자로서 출판 역량을 가꿔온 '준비된' 출판인들이 대거 출판경영전선에 나서고 있다. 이들 새내기 출판사들은 그 연배와 출판영역은 서로 다르지만 탄탄한 기획력과 참신한 경영마인드로 출판계의 '무서운 아이들'로 떠오르고 있다. 출판 유통망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출판사들이 수용하지 못했던 변방의 영역과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 비주류와 주변성의 영역 개척

지난해 6월 《레드 콤플렉스》를 펴냄으로써 우리사회에서 볼모지나 다름없었던 '인물비평' 영역을 개척한 삼인출판사(대표 홍승권)는 문예출판사·현암사·예문서원의 편집기획자로서 출판감각을 키워온 이홍용 편집장과 출판영업자 출신의 홍승권 대표, 그리고 국문학자인 이홍태 등 세사람이 뜻을 모아 만든 출판사다.

96년 9월에 출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판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레드 콤플렉스》·《보주주의자들》·《한국에 페미니스트는 있는가》 등의 인물비평서, 《호의, 백년의 기억들》·《언론유감》 등의 언론비평서,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레즈비언》의 문화비평서와 학술서인 《한국의 성리학과 실학》, 예술 실용서인 《화가만들기》 등의 중량감 있는 책들을 만들어냈다.

홍승권 대표는 "삼인은 우리사회의 주류 권력으로부터 소외당하는 비주류와 주변성의 의제를 공격적으로 파고들 것"이라면서, "비평"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이 사회와 인간의 삶에 덧씌워져 있을지 모를 허울을 걷고 진실을 보여주는 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다. 곧 주식회사로 전환해 경영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검증받겠다는 복안이다. 이달 안에 대중문화의 꽃인 스타들의 생산과 유통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스타시스템》과 90년대 대학문화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시도한 《대학문화》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출판사의 이름에는 그 출판사의 출판철학과 지향점이 담겨 있다. 96년 8월에 출판등록하고 지난해 7월에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를 첫책으로 내보낸 이산출판사(대표 강인항)는 《열자(列子)》의 '어리석은 자가 산

을 옮긴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성어에서 이름을 따다. 여기에는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으로 한권한권 정성들여 책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신촌의 율서점을 운영했던 강인항 대표와 한길사에서 재직했던 부인 문현숙 실장이 직원의 전부인 이산은 글을 다듬고 책을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는 응골찬 각오로 시작했다. 동아시아 관련서와 동서양의 문화교류에 관한 책들을 특화시켜가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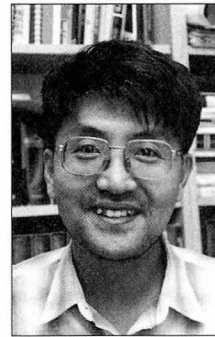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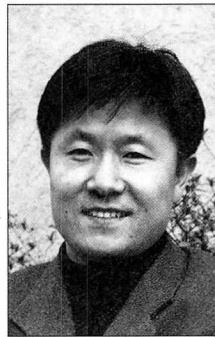
지금까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도쿄 이야기》, 《로마에서 중국까지》 등 세권을 펴내 독서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앞으로 4월 말과 6월에 각각 《중국의 '자유' 전통》과 《현대 중국을 찾아서》가 독자들을 찾아간다. 언젠가는 이산에서 만든 책들이 독자들의 서가와 도서관의 서고를 가득 채워 '책산'을 이루겠다는 다부진 꿈도 가지고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출판은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가는 공동체다. 박가서·장(博家書·場: 대표 박상일)은 '넓은 집의 책마당'이라는 이름이 말하듯이 사람들이 책을 앞에 놓고 가득 모여 세상과 삶을 이야기하는 책공동체를 지향한다. 8년간 SK그룹의 사보 《지성과 패기》 등을 만들어온 편집대행사에서 경력과 인맥을 쌓아온 박상일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동인들이 모여 96년 8월에 창립했다.

박상일 대표는 "우리 출판사는 사람이 산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많지만 살 만한 세상을 위해 살 만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책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조병준의 《나눔 나눔 나눔》과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십시오?》의 두권을 출간했고 곧 《너무~ 너무~》, 《사랑·박멸》, 《문득 고개 들어 세상 보니》, 《중심 없는 커뮤니케이션, 멀티의 중력》 등이 독자들과 만날 날을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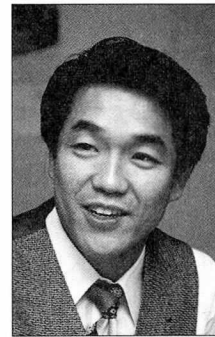
### 실용·어학분야에서 내실 다져

인문학뿐만 아니라 실용과 어학분야에서 내실을 다지는 출판사도 맹활약하고 있다. 저작권 대행사인 DRT와 김영사에 편집과 기획업무를 맡았던 강병국씨가 지난해 10월



최근의 신생출판사들은 비록 출판 연륜은 짧지만 누구보다 실무감각과 시대의식을 투철히 뉘어온 편집기획자들의 회심의 응결체다.

윗줄 왼쪽부터 홍승권(삼인)·강인항(이산)·박상일(박가서·장)·주연선(은행나무)·박광성(생각의나무)씨.



에 문을 연 '열린사회'는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이름을 따다. 소수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열린사회는 올해 1월과 3월에 각각 《이렇게 하면 실내에서 개를 기를 수 있다》와 《여성의학사전》을 펴냈다.

강병국 대표는 "출판은 아직도 무한히 열려 있는 분야다. 잠재적인 독자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한다. 현재로서는 출판사로서의 생존이 당면한 목표지만 점차 출판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네이밍(Naming) 사전》, 《영어회화, 자주 쓰이는 표현 랭킹》을 이달 중에 출시해 독자들의 감응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초에 시작한 은행나무(대표 주연선)는 '읽고 열매까지 모두 쓸모가 있으면서 또한 생명력 있는 나무'인 은행나무처럼 독자들이 필요로 하고 유익한 책이라면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만들어가겠다는 출판전략을 세우고 있다. 다나와 무당미디어에서 편집장과 기획실장을 역임한 주연선 대표는 "스스로 한계를 짓는 출판활동을 지양할 것이다. 전문화되 다양한 장르의 독자들을 공략할 것"이라고 출판방향을 밝힌다. 지금까지 《서울사람 성공하는 귀농전략》과 《눈물을 넘어서》를 출간했다. 앞으로 농촌에서 생업 터전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안내한 귀농전략의 후속편을 준비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든 세대를 초월해 읽을 수 있는 책, 단 한명만이 읽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책을 만드는 것" 해법출

판사의 주간지를 정리하고 올해 1월에 '생각의나무'를 창립한 박광성 대표의 꿈이다. 그는 "80년대의 출판문화가 엘리트주의의 패권성이 승리했다면, 90년대는 상업주의가 만연한 시대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독자들의 참된 욕구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생각의나무'는 '책은 곧 생각을 담은 그릇'이라는 출판철학에서 출발한다. 앞으로 문학·인문·실용서를 망라하는 책을 펴내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이달중에 《은어》, 《헝그리 스피릿(Hungry Spirit)》, 《트루 러브(True Love)》, 《껌대기들은 가라》, 《보통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심리학》 시리즈 총20종 등을 발간한다.

동문선에서 《세계사상》을 기획했던 박재환 주간도 현재 창립준비에 분주하다. 3~4월까지의 출판사의 열거를 짜는 데 주력하고 6월 말경에 첫책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역사교양서·현대문명비판·비판사회학서에 주력하고 회사의 경영은 철저한 공개주의 원칙을 견지할 예정이다. 현재 13~14종의 책들을 기획해놓은 상태이고 집필중인 책도 3~4종에 이른다.

이들 신생 출판사는 비록 출판사로서의 연륜은 짧지만 그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실무감각과 시대의식을 투철히 뉘어온 편집기획자들의 회심의 응결체다. 상업주의라는 악마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고집스레 자기만의 색깔로 출판의 변경지대를 확장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박전홍 기자